

N. 經濟 關聯 社說 抄錄

국내통신시장 개방은 서비스, 요금 체계, 국내시장 판도에 큰 영향을 줄 것임. 따라서 국내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경영효율성 제고가 필요

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환경라운드 협상력 제고와 에너지 절약적 산업구조의 전환이 시급

■ 통신시장 완전개방 D-100

○ 국내 통신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의 최소화

- 통신서비스와 통신 요금 체계의 대폭 변동
 - 외국인도 대주주로 경영권 행사와, 인터넷폰, 콜백 서비스 등 다양한 신종 서비스 진출이 가능
 - 국제·시외 요금 인하와 시내 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의 통신비용 부담이 늘어날 듯
- 국내 통신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
 - 한국통신은 경영 효율성 제고에 박차를 가해야 함
 - 투명한 회계처리 방안과 잉여인력 정리방안이 시급

(「매일경제신문」, 97. 9. 24)

■ 현실로 다가오는 이산화탄소 감축

○ 교토 세계기후변화협약 회의에의 적극 대응 요망

- 교토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 진전 가능성의 있음
 - 선진국 특히 유럽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5% 감축하자는 입장을 견지
 - 개도국들은 경제성장 저해, 형평성 면에서 반대
- 에너지절약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
 - 온실가스 배출규제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것임
 - 대외적으로 환경라운드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대내적으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시급

(「매일경제신문」, 97. 10. 9)

■ 내년경제 전망은 밝다는데

○ 단기 부양책보다 내실 위주의 구조조정이 필요

- 주요 연구기관들의 내년도 경제전망은 꽤 밝은 편
 - 성장률 6.8%, 경상수지적자 90억~120억 달러, 소비자물가 상승률 4.5%~4.7% 수준으로 전망

내년도 경기회복
기대가 높아지고
있으나 구조조정
의 지속, 성장잠재
력 확충 등 구조
대책이 필요

-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경제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회복이 더 중요한 과제임
- 내실 위주의 구조조정 정책이 필요
 - 구조조정의 지속과 설비투자 확대에 의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
 - 금융시장 불안, 대기업부도 등 현안의 조속 해결

(『한국경제신문』, 97. 10. 10)

정보화 추진체계
는 정비되었으나
중복투자, 부처간
정책갈등 등 문제
가 있음. 앞으로는
국민생활·산업현
장에 도움이 되는
정보화가 필요

■ 정보화 전략 평가와 과제

- 국민과 산업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화의 추진
 - 정보화 정책 평가
 - 협정부는 94년 정보통신부 신설,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,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등 성과를 거둠
 - 통신사업자간 중복투자의 방지, 부처이기주의로 광속 거래와 전자상거래의 표류 등 문제를 안고 있음
 - 생산성 위주의 정보화 전략이 필요
 - 국민생활, 산업현장에 적절된 정보화의 추진
 - 아울러 사이버경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관련 법과 제도 정비 등이 필요

(『한국경제신문』, 97. 10. 15)

우리 경제는 대기
업부도와 금융불
안의 악순환, 급증
하는 정치적 불안
에 직면. 따라서
증시대책이 효과
를 거두려면 경제
안정과 신뢰감 회
복 등 구조대책의
병행이 필요

■ 증시대책 효과 거두려면

- 경제안정과 신뢰감 회복 등 구조적 대책이 요망
 - 이번 증시대책의 약효는 제한적임
 - 주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한도 확대, 일본인 투자에 대한 비과세, 액면분할의 전면 허용 등을 포함
 - 바닥증시의 원인은 대기업부도와 금융불안의 악순환으로 인한 '돈이 돌지 않는 경제'에서 비롯
 - 경제안정을 위한 구조적 대책이 절실
 - 우리 기업의 정치안정도가 OECD국가중 최하위임
 - 증시부양을 위한 직접대책과 함께 경제안정과 장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구조대책이 절실

(『매일경제신문』, 97. 10. 17)